

용배(龍船) 짓기 고(考)

-제주도의 요마희(曜馬戲)와 관련하여-

金 光 彦

(인하대학교 교수·박물관장)

1. 머리말
2. 중국의 용배 짓기
3. 일본의 용배 짓기
4. 동남아시아 대륙의 용배 짓기
5. 한국의 용배 짓기
6. 맺음말

1. 머 리 말

용배 짓기는 용으로 꾸민 배를 여럿이 다투어 저어서 일정한 지점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동아리가 우승을 거두는 겨루기이다. 근래에 들어와 일본의 장기(長崎)에서는 스포츠(boat race)로서 자리를 잡았고 홍콩에서는 해마다 국제 대회가 열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놀이나 체육경기가 아니라 본디는 제례의 성격이 짙은 민속이었다. 배를 흔히 용으로 꾸미는 까닭에 용선경조(龍船競漕)로 널리 알려졌으나 용 외에 새나 말, 또는 신성(神性)을 지닌 가공의 동물이 등장하는 일도 적지 않으며 중국의 경우 당나라 이전의 문헌에는 경도(競渡)로 적혀있다.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벌어지는 이 생사의 목적은 곳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농민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민은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며 이밖에 재앙이나 질병을 물리치거나 죽은 사람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려는 뜻에서 벌이기도 한다. 이 민속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대륙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쌀을 재배하는 농경민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어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졌고 특히 동남아대륙에서는 왕이나 귀족들도 참가하였다.

우리의 경우, 가락국의 김수로왕 시대에 이를 벌였다는 내용이 삼국유사(기이(紀異 제 2, 가락국기)에 실려 있으나 널리 성행되지 않았던 까닭인지, 조선조 성종 때에 나온 동국여지승람 제주목 풍속조에 요마희(曜馬戲)에 대한 설명이 보일뿐,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학계에서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도 일찍부터 자취를 감추었던 데에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용준 교수가 제주도의 요마희(曜馬戲)의 명칭에 대해서도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보충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일본 학계에 전남 완도군 장좌리에서 벌어지는 송대장군제(宋大將軍祭)의 한 과정이 용배 짓기로 잘못 알려진 점에 대해서도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대륙의 용배 짓기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중국의 용배 짓기

중국의 용배 짓기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제(濟)나라의 유징지(劉澄之)가 쓴 파양기(鄱陽記)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태평어람(太平御覽) 권(卷) 66 지부(地部)).

“懷蛟水(一名 孝經瀆)는 縣 남쪽 2백보 거리에 있으며… …때때로 이무기(蛟)가 떠올라 사람을 해친다. 해마다 5월 5일에 삼들이 이곳에 모여 배짓기 대회를 연다. 俗에 屈原을 구해 냄으로써 재앙을 쫓는다고 이른다.”

또 6세기에 양(梁)나라 종름(宗凜)이 지금의 호북(湖北)과 호남(湖南)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강 중류 지역의 연중행사를 적어 놓은 형초세기(荊楚歲時記)에도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다.

“5월 5일 競渡를 벌인다. 일반에서는 이날 屈原이 汨羅에 몸을 던진 까닭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사람마다 배 짓기를 함으로써 그를 구해 낸다고 여겼고 이것이 연중행사로 굳어진 것이다. 배는 가볍게 만드는 것이 으뜸으로, 나는 오리(飛鳧), 물에서 달리는 수레(水車) 또는 물에서 달리는 말(水馬)이라 불렀으며 대체로 越人들은 배를 수레로 살고 노는 말로 여겼다….

(안오월오일경도속위굴원투골라일상기사고병명단즙이증지가선취기경이위지비부일자이위수

(按五月五日競渡俗爲屈原投汨羅日傷其死故並命丹楫以拯之舸舟取基輕利謂之飛鳧一自以爲水

군일자이위수마개월인이선위차이움위마야)”

軍一自以爲水馬蓋越人以舟爲車以揖爲馬也)”

7세기에 나온 수서(隋書)(권31) 지리지(地理志)에 실린 내용은 이와 조금 다르다.

“사람들이(물에 빠진) 屈原을 살려 내려고 洞庭(湖)에 이르렀으나 보이지 않았고 호수는 넓고 배는 작아서 건널 수도 없었다. …이에 노를 다투어 저어서 돌아왔고…이것이 전해져서 競渡가 되었으며… 특히南郡과 襄陽(현재의 河南省 南部)에서 성행되었다”

또 당(唐)나라 때 나온 수당가화(隋唐嘉話)에는 굴원(屈原)이 강에 몸을 던지자 사람들이 배를 내어 찾았고 이 때 다투어 저었던 것이 뒤에 경도(競渡) 풍속이 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처럼 용배 짓기의 기원을 굴원(屈原)(343?~277? B.C)의 고사에 두는 지역은 복건성(福建省)과 사천성(四川省) 일대가 주류를 이루며 대만, 그리고 일본의 장기(長崎)와 충승(沖繩) 일대에도 굴원(屈原)의 전설이 전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전국시대 초(楚)나라 충신으로서 왕에게 여러 가지 시책을 건의하였지만 오히려 간신들의 꾀에 남

어간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호남성(湖南省) 강남(江南)으로 귀양 살이를 가게 되었고 드디어 나라가 진(晉)에 먹히자 스스로 골나(汨羅)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로 흘러드는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그 뒤 그는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에 몸 바치는 대표적 인물로 떠올라 많은 사람들의 숭앙을 받았으며 용배 짓기의 유래담에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밖에 용배 짓기와 관련된 인물로는 역시 춘추전국 시대에 초(楚)나라에 몸을 담았다가 오(吳)나라로 넘어가서 오(吳)가 월(越)을 치는 데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임금으로부터 자결하라는 명을 받아 저주를 남기고 죽었고 이에 화가 난 왕이 그의 주검을 가죽 부대에 넣어 강(전당강(錢塘江))에 던졌다는 오자서(伍子胥)와 한안(漢安) 2년(143) 5월 5일 바다에 빠져 죽은 아버지를 애도하던 끝에 몸을 던졌다는 조아(曹娥), 그리고 남편을 죽인 몽사(蒙舍)가 비(妃)가 될 것을 강요하자 역시 물에 뛰어들었다는 자선부인(慈善夫人) 등이 있다.

용(龍) 자신이 유래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귀주성(貴州省) 일대에서는 물고기를 잡다가 아들을 용(龍)에게 잡아먹힌 한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강을 철가마로 막고 용(龍)을 잡아 토막을 내었고 그의 용기에 감복한 사람들이 이를 기리기 위해 용배 짓기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용(龍)이 잘못을 저지르자 천공(天公)이 여러 토막을 내어 물에 던졌으며 이렇게 되자 심한 가뭄이 들었고 이에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배에 올라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 용배 짓기의 시초였다고도 한다.

이처럼 중국의 용배 짓기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함으로써 재앙이 물러가고 행복이 돌아오리라는 기대와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기우제 행사로서 벌여왔다. 그리고 그 시기가 5월 5일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도 이 무렵이 양자강 일대의 눈에 심은 모가 한창 자라는 시기임에도 가뭄이 자주 드는 기후적 조건과 연관이 깊다고 하겠다.

명(明) 나라의 양사창(楊嗣昌)이 쓴 무릉경도략(武陵競渡略)에는 이 민속이 원상(沅湘)에서 비롯되었다고 적혀 있다. 원상(沅湘)은 동정호(洞庭湖)로 흘러드는 상수(湘水)와 원강(沅江) 두 물 줄기를 가르키는 말로서 이 일대에 후한(後漢) 때에는 무릉만(武陵蠻)이, 남북조(南北朝) 시대에는 오계만(五溪蠻)과 형송주만(荊송州蠻)이, 송대(宋代)에 이르기까지는 요족(獠族)이 거주하였다.¹⁾ 중국 학자 문일다(聞一多)도 단오의 용배 짓기는 본디 양자강 하류에 살았던 오(吳)와 월(越)의 민속이라 하였고 능순성(陵純聲) 또한 월인(越人) 곧 고대(古代)의 백월(百越) 민족이 용선(龍船)을 타고 수신(水神)에게 제사를 지낸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적었으며²⁾ W.Eberhardt도 이를 월문화권(越文化圈)과 연관된 의례로 보았다.³⁾ 따라서 이러한 견해들이 옳다고 한다면 용배 짓기 민속은 중국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자강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양자강 중·하류 지역에서 생겨난 용배 짓기는 강서(江西), 호북(湖北), 강소(江蘇), 광서(廣西), 광둥(廣東), 복건(福建), 절강(浙江) 그리고 호남성(湖南省)을 포함하는 화중(華中) 및 화남(華南)위 전역(全域)으로 퍼져 나갔다.

이 민속은 오늘날에도 귀주성(貴州省)과 운남성(雲南省) 일대의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1) 君島久子, 龍神(龍女) 説話と龍舟祭(1), 1977, 國立民俗博物館 研究報告 2卷 1號에서 재인용(35쪽)

2) 清水 純, 東アジア・東南アジアにおける競舟儀禮について, 1983, 季刊人類學 14-4號 201쪽에서 재인용.

3) W.Eberhardt, The Rocal Cultures of South and East China, 古代中國の地方文化, 白鳥芳郎 監譯, 1978, 六興出版, 353쪽

도 성행되지만 특히 귀주성 청수강변(淸水江邊)의 태강(台江)과 시병(施秉) 두 현(縣)에 사는 먀오족(묘족(苗族))들의 행사가 유명하다(사진 1~3). 이들은 해마다 음력 5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나흘 동안을 용선절(龍船節)로 쇠며 성대한 용배젓기 겨루기를 벌인다. 이 때 모여드는 구경꾼만 5만여 명에 이르러 강의 양 언덕은 사람의 구름 떼로 뒤덮인다. 배는 지름 60cm, 길이 18m쯤 되게 삼나무를 파서 만들며 좌우 양쪽에 길이 두 발 정도의 작은배 두 척을 이어 붙인다. 따라서 이곳의 용배는 어미배 한 척에 아기배 두 척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한 척의 배만을 쓴다.) 어미배 이물에는 버드나무를 깎아 만든 거대한 용머리를 걸어둔다. 어미배의 승선원은 모두 44명으로 지휘자 한 사람, 키 잡이 세 사람, 그리고 노꾼 40명으로 구성되며 징잡이는 은장식을 붙인 옷 차림에 아름다운 관을 쓴 여자로 꾸민다. 사람들은 머리에 갓을 쓰고 군청색 저고리에 긴 바지차림을 하며 은빛 자수를 놓은 허리띠를 동인다. 경기를 벌이기 전 각 마을에서는 배 두척을 내어 서로 상대방 마을을 찾아가며 사람들은 횃불을 밝혀두고 이들을 맞아서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이러한 과정은 약 사흘 동안 이어지며 이에 참가하는 배가 많을 때에는 40여 척에 이른다. 따라서 이곳의 용배 젓기에는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외에 마을과 마을 사이의 화합을 다지고 단결을 굳히는 뜻도 들어 있다.

이 행사의 지휘자로는 덕망이 높은 사람을 뽑으며 그는 배 이물에서 북을 쳐서 기세를 돋구는 구실을 하는 외에 겨루기가 끝난 뒤 용머리를 보관하는 책임을 진다.

1991년의 겨루기 때에는 배 좌우에 “바람은 부드럽고 비는 알맞게 내린다.(風調雨順)”,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화롭다(國泰民安)”, “민족이여 하나로 뭉치자(民族團結)”, “생산을 높이자(增價生產)” 따위의 구호를 써놓았다. 배는 겨루기에 앞서 용원군이 물려있는 언덕 가까이로 가서 천천히 세 번 돌면서 필승의 결의를 다진다. 이때 사람들이 어지럽게 터뜨리는 폭죽 소리와 배에서 울리는 북과 징 소리에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하다.

벃머리가 언덕에 닿으면 사람들은 다투어 용머리에 채색 천을 걸고 돼지, 양, 닭, 오리 고기 따위를 바치는 한편, 노꾼들에게 술 대접을 한다.

강 가운데에서 머리를 나란히 한채 출발 신호를 기다리던 제 척의 배는 징이 울리자 앞을 다투어 미끄러져 나가고 양 언덕 위의 사람들은 환호를 질러 자기 마을 배를 응원한다. 겨루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이긴쪽이고 진쪽이고를 가릴 것 없이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온 밤을 지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 젊은 남녀들은 짝짓기에 열중한다.

배는 용사당(龍祠堂) 안에 둔다. 사당이라고는 하지만 배 길이에 맞게 지붕을 씌운 구조물로서 사방은 터져 있으며 문도 따로 달지 않았다.

이곳의 용배 젓기는 앞에서 든대로 용에게 잡아먹힌 아들을 구해낸 아버지의 용기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운남성(雲南省) 서쌍판납(西雙版納) 일대의 다이족(族)들은 1970년대부터 여성들끼리의 용배젓기를 벌여온다.

중국에서는 당(唐) 시대부터 궁중에서도 배젓기 행사를 벌였고 이것은 청대(清代)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들고 많은 사람이 노역에 시달려야 하는 등 폐해 또한 적지 않아서, 식자들이 폐지를 건의한 일도 있다. 신당서(新唐書 권(券) 126) 장중방전(張仲方傳)에 따르면 용배 30척을 짓는 데에 정부 조운(遭運) 예산의 반이 들어가는 것을 간하여 3분의 1로 줄였다는 기사가 보이고 당(唐)의 원진(元稹)이 남긴 원씨장경집(元氏長慶集) 권(卷)3 경주(競舟)에도 “楚지방에서 본업을 보리고 競舟에 힘쓰며…

이에 드는 비용을 백성들에게서 뜯어 내고… 작물이 영글지 않고 수해가 들어도 이를 돌보지 않고 장정들을 모아 배 짓기 연습을 시키며… 뱃고사를 조상 제사처럼 받들고… 승부를 내는 데에 목숨을 건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러한 궁중 행사는 주로 장안(長安)과 북경(北京)에서 베풀어졌으나 북경(北京)의 경우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에서 비롯된 용주제(龍舟祭)는 연례행사로서 자리를 잡아 오늘에 이른다. 북경 시민들은 용배 짓기를 벌이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단오를 설 몇 한가위와 함께 3대 명절의 하나로 손꼽으며 이날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비단실로 악귀를 쫓기 위한 매듭을 짓는다. 그리고 이에 작은 앵두, 희고 검은 뽕나무 열매, 마늘, 오이류, 가지 따위의 형상과 함께 범을 타고 앉은 소년과 향이 담긴 호리병 모양의 돈주머니를 달아 두는데 이를 호로화(箒蘆花)라고 부른다. 이것은 주로 소년들이 지니고 다니며 소녀나 부인들은 범형상을 달아맨 끈이나 부적을 머리에 꽂는다. 이밖에 다섯 가지 독충(毒蟲)이 그려진 그림을 대문에 붙여서 악귀와 들림병을 물리치고 찻쌀을 갈대 잎에 싸서 찐 종자(種字)를 명절 음식으로 먹는다.⁴⁾

북경 일대의 이러한 민속이 용배 짓기처럼 재앙을 물리치고 풍작을 거두며 복을 받게 되리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중국의 용배 짓기 풍속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남경(南京) 지역에서 용(龍)이 아니라 마머리(마두(馬頭))로 장식한 배로 짓기 내기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황석(黃石)이 쓴 단오예속사(端午禮俗史)(1977)의 내용을 청수(淸水) 순(純)이 인용한 것⁵⁾

이어서 단편적인 점이 아쉽지만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는 금세기의 기록 가운데 馬首를 장식한 배를 이용한 競渡가 南京에서 베풀어졌다는 내용이 있다. 馬首는 흔히 廟祭에 쓰는 제물이지만, 사람들은 節日이 되면 이를 꾸며 들고 정중하게 문 밖으로 나서서 배에 걸고 競舟를 한다. 馬首에는 五色의 칠을 하여 紅馬), 白馬… 등으로 부른다.”

말과 관련된 기사는 앞에서 든 형초세기(荊楚歲時記)에도 보이지만 후한(後漢)의 장형(張衡)이 지은 서경부(西京賦)에도 나타난다.

“이 때에 舟牧(배를 다루는 관리)에게 명하여 (말로 꾸민) 배로 물놀이를 벌이도록 하였으며 鷓首로 장식한 배를 띄우자 雲芝를 덮었다(於是命舟牧馬水嬉, 浮鷓首翳雲芝).”

익조(鷓鳥)는 수신(水神)을 제압하는 영력(靈力)을 지녔다고 일컬어져서 천자(天子)가 타는 배에 꾸몄고 일반에도 배의 안전을 도모키 위해 익조(鷓鳥)의 형상물을 이물에 거는 일이 많았다.

“배를 말 모양으로 꾸민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도 약마희(躍馬戲)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 용배 짓기는 1976년부터 홍콩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로 개최되기 시작하였고 (Hong Kong Dragon Boat Festival) 을 해(19회)에는 6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빅토리아 항구에서 베풀어졌다.(사진4).

한 배에는 22명의 선수들이 타며 이 가운데 20명만 노를 젓고 한 사람은 배에 고이는 물을 퍼내는 일을 맡으며 나머지 한 사람인 지휘자는 배의 방향을 지시하는 외에 북을 쳐서 기세를 높이고 노를 젓는 이들도 이에 따라 박자를 맞춘다.

배는 용처럼 좁고 길며 이물에 용 조각을 걸어 장식하고 좌우 양쪽에는 비늘을 그려

4) 羅信耀, 北京風俗大全, 藤井省三 等譯, 1988, 平凡社, 144~145쪽.

5) 앞에서 든 2) 글의 208쪽

넣었으며 배 가운데에 깃발을 세웠다. 배를 짓는 거리는 640m이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용 조각과 몸체를 따로 떼어서 이듬해까지 용사당(龍祠堂)에 보관하거나 모래 속에 묻고 지붕을 씌우기도 한다.

축제가 벌어지기 나흘 전 모든 배들은 어민들의 수호신을 모신 사당 앞에서 용의 눈을 그리는 이른바 화룡점睛(畫龍點睛)의 의식을 치른 뒤 용 머리를 배 이물에 꽂는다. 이대 사람들은 배 앞에서 종이 돈을 태우고 축문을 읊조려서 악귀를 쫓는 동시에 배의 안전과 행운을 빈다. 그리고 모든 배들은 사당 앞에 다시 모여서 북 소리를 신호로 바다쪽으로 나갔다가 사당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세 번 반복하여 이로써 출범식을 마친다.

3. 일본의 용배 짓기

일본의 용배 짓기 풍속도 그 역사는 매우 오래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京都 大阪市를 잇는 선을 중심으로 그 서쪽인 이른바 서부(西部) 일본(日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대신 그 동쪽인 동일본(東日本)에서는 (동경만(東京灣) 부근의 신내천현(神奈川縣) 제외)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사실이다.

용배를 다투어 저어서 승패를 결정짓는 점에서는 중국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대부분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풍농이나 풍어를 기원하며 줄다리기처럼 농사의 흥풍을 점치기 위한 신사(神事)의 하나로 벌여왔다는 점이 특이하다. 심지어 한 마을에 농민과 어민이 함께 사는 경우 이들이 서로 겨루어서, 농민쪽이 이기면 농사가 잘되고 어민이 승리하면 고기가 많이 잡히리라 여기기도 한다.

이 행사의 방법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구주(九州) 서남부(西南部)를 중심으로 하는 폐에론계(系)와 충승(沖繩) 일대의 하아리이계(系)의 둘로 나눌 수 있다. 폐에론이나 하아리이는 배의 이름으로서 하아리이는 중국의 파용(爬龍(선(船)))에서 왔다.

충승(沖繩)의 하아리이는 그 기원을 굴원(屈原)위 고사(古事)에 두는 등 중국에서 전파된 자취가 뚜렷하며 일부 지역에는 남산왕(南山王)의 동생이 남경(南京)에서 보고 와서 퍼뜨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농가에서는 농작물을 거둔 뒤 줄다리기, 말달리기, 가장행렬 등과 함께 풍년을 감사하는 의례의 하나로 벌이는 반면 어민들은 음력 5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풍어를 바라고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베풀되, 이 행사 하나만을 단독으로 치러서 대조를 보인다.

용배 짓기는 주로 마을 대항으로 벌이는 까닭에 두 마을인 경우에는 두 척이, 세 마을인 때에는 세 척이 겨루며 우승을 거둔 마을에 풍년이 들리라 여긴다.

충승(沖繩) 본도(本島) 계만시(系滿市)의 용배 짓기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경기를 벌이기에 앞서 무당이 언덕에 올라 동서남북의 순서로 절을 올리며 큰 깃대를 가진 사람이 이를 흔드는 것을 신호로 경기를 시작하고 또 신(神)이 바다 저쪽에서 풍요를 가지고 찾아온다고 믿으며 배 짓기가 끝난 다음날에는 배를 타고 나가지 않는 등 제주도의 풍속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밖에 엄미(奄美)를 비롯한 지역에서 짚이나 나뭇잎으로 만든 배에 별레를 싣고 바다로 떠나 보내면서 “남쪽 나라로 가라”고 이르는 것도 짚으로 만든 배에 악귀를 싣어 보내는 우리네 용왕제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한해 동안 밭의 해충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배의 크기나 승선 인원 따위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국두군(國頭郡)위 경우 배 길이 7발, 너비 1.8m쯤 되며 모두 37명이 배에

오른다.

1655년부터 시작 되었다고 하는 장기(長崎) 일대의 페에론은 이 지역의 생업과 관련이 깊다. 농촌에서는 농작업이 끝난 뒤 수확의례로 벌이고 어민이나 수신(水神)을 받드는 사람들은 5월 5일에 풍어와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배풍다. 이 행사에 대한 규정은 일찍부터 제정되었으며 승선 인원은 33명 이하, 배 길이는 12, 38m 이하로 제한한다. 특히 장기시(長崎市)의 용배 짓기는 관광협회 등의 후원에 힘 입어 스포츠로 탈바꿈 하였고 현(顯)에서 우승한 팀은 앞에서 설명한 홍콩 대회에 대표로 참가한다.

일본 각지의 용배 짓기 실태를 조사한 해야(海野) 청(淸)은 그 유형을 신(神)을 맞아 들이는 형과 신을 배웅하는 형 그리고 신을 즐겁게 하는 형의 셋으로 나누고 첫째 유형에 딸리는 지역으로 태평양(太平洋), 일본해(日本海)(우리나라 동해(東海)), 동(東)지나해(海) 등에 면한 해안을 들었으며 이 일대의 신은 풍요를 가져오는 곡신적(穀神的)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둘째 유형이 분포하는 지역은 태평양(太平洋) 연안으로 불행을 가져오는 무서운 신(神)으로 인식되며 셋째 유형이 퍼진 지역은 너호내해(瀬戸内海)로서 신(神)의 영험이 뛰어난 근청신(勸請神)이며 장기(長崎)와 충승(沖繩)에 분포하는 것은 고유의 재래신(在來神)이라고 하였다.⁶⁾

일본 용배 짓기 민속 가운데 또 하나 눈길을 모으는 것은 배를, 말 머리에 거북이 몸(마두구체(馬頭龜體))으로 꾸미는 곳이 있는 점이다. 다음은 해야(海野) 청(淸)의 보고이다⁷⁾

“신내천현 횡병시 중구 본목정 본목신사(神奈川縣 横浜市 中區 本牧町 本牧神社)가 그것으로 이 신사(神社)에서는 본디 음력 6월 15일 묘시(卯時)에 용배 짓기를 시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8월 만조(滿潮) 때에 벌인다.” 말 떠나 보내기<お馬流>”는 이 신사(神社)(제신대일영귀(祭神大日靈貴))의 특수신사(特殊神社)이다. 사전(社傳)에 따르면 이 신사는 홍장(弘長)3년(1263)에 세워졌으며 “말 떠나 보내기”는 영록(永祿) 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말”이란 띠로 만든 말 머리에 거북이 몸채(마수구체 馬首龜體)를 이른다. 말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 백폐(百弊)를 꽂고 입에는 벼 이삭을 물린다. 또 거북 모양의 몸채 부분에 콩과 밀을 찢은 것에 기나가루⁸⁾를 묻힌 신찬(神饌)을 놓는다... 신선(神船)으로는 현재 동력(動力) 어선(漁船) 한 척을 쓰지만 예전 배는 축(舳)이 길고 너비는 1.5m쯤 되는 특수한 형태로서 이 신사(神社)에서만 썼다. 승선 인원은 40명으로 노 5개 샷대 6개를 써서 바다로 저어 나갔다. 이 신선(神船)은 약 4km 떨어진 바다에서 궁원(宮元)의 배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말”을 바다에 방류(放流)한다. 이와 동시에 신선(神船)은 왼쪽으로 뱃머리를 돌린 다음 물을 향하여 짓기 시작하는데 선원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해안에서는 마을사람들이 여러 가지 빛깔의 천을 휘두르며 응원을 보낸다. 예전에는 6개 마을에서 6척의 배를 내어 겨루었으며 이긴 순서에 따라 신사(神社)참배를 하였다고 한다. 이 행사에는 연점(年占)의 뜻은 들어있지 않다.

또 사람들은 떠나 보낸 말이 다시 물으로 돌아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만약 말이 본디 자리로 홀로 돌아오면 즉시 고기가 잡히지 않고 돌립병이 들게 된다고 믿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행사는 악귀를 멀리 보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배를

6) 海野 淸, 船競漕の民俗, 民俗學評論6)의 4 18 - 19 合併號, 1980, 大家民俗學會

7) 6)의 48~49쪽

8) 幾那樹의 껍질을 말린 것으로서 키니네의 원료가 된다.

저을 사람이 없어서 신선(神船)은 기계선 한 척으로 대신하고 배 짓기 겨루기는 벌이지 않는다. 그러나 “말”을 방류(放流)한 다음, 속력을 다해서 물으로 돌아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보고자는 이밖에 이 신사(神社)에 전하는 고문서(古文書)에 “영록(永祿) 9년 병인(丙寅) 6월 15일 처음으로 궁원(宮原)이라는 사람이 바다에 나가 띠로 엮은 말로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말에 대해서는 불명(不明)한 점이 많으며 형태는 명치(明治期)와 비교해서 크게 바뀐 듯 하다. 고로(古老)에 따르면 옛날에는 용(龍)의 형태였다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에 대해서 불명(不明)한 점이 많다”고 한 것은 이같은 민속이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전에는 용이었다”는 대목도 무엇인가 착각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앞에서 든대로 신사 기록에 말 머리로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중국처럼 궁중에서 용배 짓기 행사를 벌였다는 내용이 10세기 무렵의 기록에 전한다. 곧, 일본기략(日本紀略) 응화(應化) 원년(元年)(961) 2월 12일과 5월 6일 천황(天皇)이 궁중의 조전(鈞殿)에서 구경하였다는 기사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내용이 다른 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그 뒤로 이어지지 않은 듯 하다.

4. 동남아시아 대륙의 용배 짓기

동남아시아 대륙의 베트남,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일대에도 용배 짓기 풍속이 퍼져 있다.

배 형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타이 북부와 베트남 중부에서는 용으로 꾸미지만 라오스에서는 영력(靈力)을 지녔다고 전하는 수상(水上) 생물(生物)인 나가(Naga)의 머리와 꼬리로 장식하며 특히 라오스에서는 이 행사의 기원을 나가에서 찾는다. 이에 비해 캄보디아에서는 배를 악어로 여기기도 하며 우기(雨期)가 지난 뒤 벌이는 수제(水際)는 이 악어와 나가를 물리치고 빛과 건조(乾燥)의 신(神)을 맞아들이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타이와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배를 새(조(鳥))로도 꾸민다.

이들 지역의 옛 왕국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처럼 용배 짓기를 왕실의 의례로 베풀었으며 베트남에서는 985년, 황제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벌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국왕이 이 행사에 큰 역할을 한 사실이다. 타이의 아유타국에서는 왕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칼로 물을 치므로써 장마 때 고인 물이 잘 빠져 나간다고 여겼으며 용배 짓기는 이 뒤에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대 “왕이 물을 물리쳤다”는 환호를 울리며 풍년이 들리라 여겼다.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왕국에서는 왕과 왕족, 귀족, 사원, 행정기관의 대표자 등이 권력 순위대로 배를 내어 경기를 벌이되 반드시 상급자가 이기게 함으로써 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권력의 질서를 재확인 하였다.⁹⁾ 캄보디아의 수도에서는 장마가 물러난 것을 자축하는 뜻으로 3일동안 용배짓기 대회를 벌였으며 각 절간에서는 18명 내지 40명이 타는 배 한 두 척을 내어서 참가하였다.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이 행사의 절정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이루어진다. 달이 떠오르면서 바라문 승려가 강 양쪽에 걸어 놓았던 끈을 칼로 자르

9) 2)의 글의 211~212쪽.

는 것을 신호로 배는 경주를 시작하고 이와 함께 구경꾼들은 환성을 질러 응원을 펼치는 것이다.

금빛을 입힌 경주용 배는 나무 그늘에 세워 두는데, 여자가 손을 대는 것은 물론이고 앞을 지나는 것조차 엄하게 막았다. 만약 이를 어기면 반드시 복통이 일어나고 임신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며 경기 도중에 배가 뒤집히거나 속도가 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금기는 꼬아놓은 줄을 신체로 여긴 나머지 여자의 접근을 금했던 우리네 줄다리기를 연상시킨다.

이 나라의 용배짓기 민속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뒤에 설명하는 대로 우리네 용왕굿이나 띠벧놀이 따위에서처럼 띠배에 제물을 실어 바다로 떠나보내는 과정이 들어 있는 점이다.

배는 바나나 겹질을 이용해서 네모꼴로 결어 만들며, 하루 전 날 현미(玄米), 백미(白米), 5개의 향(香), 두 개의 촛불을 담아서 큰 배 가운데에 두었다가 마지막 경기를 벌이기 직전에 물에 띄워 떠나보낸다. 사람들은 이때 달을 향해 “내년도 올해보다 풍년이 들도록 도와주소서 전쟁이나 병 그리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읊조리는 것이다.

악운을 작은 배에 실어 떠나 보내는 과정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있다는 보고는 읽지 못하였으나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와 일본에 현존하는, 같은 내용의 절차는 이 나라의 민속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타이의 아유타국에서는 왕과 왕비가 남성과 여성을 상징한다고 여겨서 농사의 흥풍을 점치는 일이 있었다. 곧 왕의 배가 이기면 농사가 잘 되고 그 반대가 되면 재앙이 온다고 여긴 것이다.

동남아대륙의 여러 나라 가운데 용배 짓기 풍속이 가장 깊게 뿌리내린 곳은 타이로서 오늘날에도 “10월이나 11월의 우기가 끝날 무렵이 되면 거의 모든 강에서 벌어진다.”¹¹⁾ 배는 좁고 긴 커누로서 50명 이상이 질러 강의 양 언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성을 질러 응원을 보낸다. 이 나라 용배 짓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북부지역의 난(Nan) 강에서 벌이는 것으로 (사진 5), 배는 나가(Naga)와 용의 형태로 꾸미는데(사진 6), 그 화려함은 형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물에 걸린 용은 하늘을 삼킬 듯 입을 크게 벌이고 배 옆에 여러 빛깔로 그려놓은 비늘은 물기를 머금어서 더욱 선명하며 고물의 꼬리도한 하늘을 향해 번쩍 치켜 올라갔다. 노를 짓는 선수들도 각 팀마다 노란색, 푸른색, 흰색 따위의 셔츠를 입어서 화사한 분위기를 더 해 준다.

타이의 용배 짓기 가운데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물에 흰 말 두 마리를 세운 배가 등장하는 점이다(사진 7). 배는 경주용처럼 좁고 길며 가운데에 화려한 장식을 붙인 수레가 놓이고 두 마리의 흰말이 이를 끌고 달리는 모습이 보인다. 노를 짓는 사람들이 여성들인 점으로 미루어 이 배는 경기용이 아니라 국왕이나 귀족이 타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레를 말이 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이를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 드물게 나타나는대로 배 이물을 말 머리로 꾸미는 관습의 한가지로 볼 수도 있어 매우 주목된다.

동남아 대륙의 용배 짓기는 지역에 따라 유래담이나 벌이는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대로 재앙을 물리치고 풍년을 맞아 들이기 위한 데에 있는

10) Poree, G, Maspero, E, 大岩 誠, 淺見 篤 譯, カムボヂャ民俗誌, 1944, 生活社, 281-2쪽.

11) W.Warren, Festival of the Thailand, 1989, Asia Books, 48쪽

며 더 나아가 국가의 태평을 바라는 행사로도 이어져 왔다. 그리고 남녀팀의 승패에 따라 농사의 흥풍을 점친 점등은 벼농사 지역의 대표적 민속인 줄다리기를 연상시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5. 한국의 용배 짓기

우리네 용배 짓기에 관한 첫 기록은 삼국유사 가락국기(권 제2, 기이 제2)에 보인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이 가운데 도 수로왕을 사모해서 별이는 놀이가 있다. 해마다 7월 29일, 이 곳 백성들과 서리 그리고 군졸들이 승점(乘帖)에 올라 장막을 치고 술과 음식을 들면서 즐겁게 논다. 이들은 두목으로 하여금 장정들을 좌우로 가르게 하고 한패는 육지에서 말을 몰아 달리고 다른 한패는 뱃머리를 나란히 하여 물 위로 서로 밀면서 북쪽의 고포(古浦)를 향해 다투어 저어서 먼저 닿기를 겨룬다. 이것은 대개 옛날 유천(留天)과 신귀(神鬼) 등이 왕후가 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수로왕에게 알렸던 옛 자취이다

(차중경유가락사모지사 해이칠월이십구일 토인이졸 척승점 설유막 주식음호인 동서송월 장

(此中更有假樂思模之事 每以七月二十九日 土人吏卒 陟乘帖 設帷幕 酒食歡呼而 東西送目 壯

건인부 분류이좌우지 자망산도 박제침침 이경연어증 익수가가 이상추어수 북지고포이쟁추

健人夫 分類以左右之 自望山島 駁蹄駁駮 而競溱於陸 鷁首假假 而相推於水 北指古浦而爭趨

개차석유천신귀등 망후지래 급모고군지유적야).”

蓋此昔留天神鬼等 望后之來 急促告君之遺迹也.”

이 글 중의 “수로왕을 사모해서”나 “옛날 유천과 신귀 등이”하는 부분은 김수로왕이 허왕후를 맞기까지의 과정을 이르는 것으로 역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무(建武, 송(宋) 무제(武帝)(420~422))의 연호) 24년 술신(戊申) 7월 27일에 구간(九干)등이 임금에게 혼인을 권하자 <내가 여기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으로, 나에게 짝을 지어 왕후로 삼게하는 일도 역시 하늘이 지시할 것이니 경들은 염려 말라> 이르고 왕은 드디어 유천간(留天干)에게 일러 빠른 배와 빠른 말을 가지고 방산도에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는 한편, 신귀간(神鬼干)을 승첩으로 보냈다. 갑자기 바다 서쪽에서 붉은 돛을 단 배가 붉은 기를 휘날리며 북쪽을 바라보고 오고 있었다. 유천간 등이 먼저 망산도 위에서 횃불을 올리자 사람들이 다투어 육지로 내리어 뛰어오므로 신귀간(神鬼干)이 이것을 바라보다가 대궐로 달려 와서 왕에게 아뢰었다.

(속건무이십사년무신칠월이십칠일 구간등조알지차 가언왈 대왕항영이래 호구미득 청신등

(屬建武二十四年戊申七月二十七日 九干等朝謁之次 假言曰 大王降靈已來 好仇未得 請臣等

소유쳐녀절호자 선인궁위 비위항려 왕왈 김항우자 천영야 배질이작후 역천지명 경등무

려

所有處女絶好者 選人宮闈 俾爲抗儷 王曰 朕降于茲 天命也 配朕而作后 亦天之命 卿等無慮

수명유천간압경주지준마 도망산도입대 신명신귀간 취승점 <망산도 경남도서야 승점 연하

遂命留天干押輕舟持駿馬 到望山島立待 申命神鬼干 就乘帖 <望山島 京南島嶼也 乘帖輦下

국야> 홀자해지서남우 패비범 장숙기 이지호북 유천등선거화어도상 즉경도하릉 쟁분 이래

國也 >忽自海之西南隅 掛緋帆 張茜旗 而指乎北 留天等先舉火於島上 則競渡下陵 爭奔而來

신귀망지 주인결진지)

神鬼望之 走人闕秦之)

이 배에 타고 있던 허황옥이 김수로왕의 왕후가 된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이들 글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은 김해 지방에서 해마다 허황옥이 가락국에 이른 7월29일을 기념하여 육지에서는 말달리기 대회를 바다에서는 배젓기 놀이를 벌였다는 대목이다.

배 모양이나 경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이 아쉽기는 하나 이 배 젓기 행사가 이른바 용선 경주(龍船競舟)임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김병모(金秉模) 교수는 허황옥이 쌍어신(雙魚神)을 믿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내란을 피해 중국 보주(普州)로 옮겨 갔다가 한 나라의 과중한 세금에 시달린 끝에 다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쳐 가락국으로 들어 왔다고 보았다.¹²⁾ 그리고 그녀가 거쳐온 지역에서는 용배 젓기가 활발하게 벌어졌던 만큼 우리네 이 풍속은 허 공주가 퍼뜨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 든 삼국유사의 기록에 배 형태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으나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배에 용모양의 장식을 붙이고 젓기 내기를 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앞 기록에서 배젓기 행사를 “수로왕을 사모해서” 벌인다고 하였지만, 수로왕이 살아 있었을 때 이미, 먼 고장에서 온 아내를 위해 그네 고향의 경기를 벌이도록 하는 배려를 베풀었고 이것이 뒤에 연례적인 행사로 굳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써 용배 젓기 놀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서기 1세기에 이미 벌어진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행사의 자취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문헌은 조선조 성종(成宗)(1470~1494) 때 나온 동국여지승람으로 제주목 풍속조에 다음 기록이 보인다(권 38).

“2월 초하루에 귀덕(歸德), 김녕(金寧) 등지에서는 12개의 장대를 세우고 신을 맞아 제사를 지낸다. 애원(涯月) 사람들은 떼를 말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채색 비단으로 꾸미고 요마희(曜馬戲)를 벌여 신을 즐겁게 하였다. 보름이 되어야 끝내니 이를 연등이라 한다. 이달에는 배를 타지못한다.

(우이일삭일 어귀덕금녕등지 입육우십이영신제지 거애월자 득사어마두자 식이채백작요마

(又二日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迎神祭地 居涯月者 得槎如馬頭者 飾以彩帛作

12) 김병모, 김수로왕비 허황옥, 조선일보사 출판부,1994,

曜馬

가이오신 지팡내파 위지연등 시월금승선)”

假以娛神 至望乃罷 謂之然燈 是月禁乘船)”

한편, 19세기 후반에 나온 동국세시기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보이나 저자가 “동국여지승람을 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 책의 것을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

앞 기록에서는 연등이라 적었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제주도에서 베풀어지는 영등굿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굿은 영등할망이 해마다 2월 초하루 제주도 동쪽 구좌읍 우도(牛島)로 들어와 미역씨, 전복씨, 소라씨 다위를 뿌려서 풍요를 빌어주고 보름날 다시 우도를 거쳐 돌아간다고 여겨서 사람들이 이 신을 맞이하는 연등 환영제와 다시 떠나보내는 영등 송별제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네의 고향은 “강남천자국(江南天子國)” 또는 바다 건너 “외눈백이섬”이라고 하며 곳에 따라 농사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도 믿는다(정월 그믐날(정월 그믐날 우도로 들어왔다가 이월 초하룻날 한림을 한수리(翰洙里)에 와서 제사를 받아 먹고 사흘 동안 섬을 돌아본 뒤 그 다음날 토끼날(묘일(卯日))이나 소날(축일(丑日))을 돌아간다고도 한다).

이 굿의 여러 절차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신을 맞아들이는 요왕맞이와 신을 환대하는 과정 그리고 신을 떠나보내는 배방선이다. 용왕 맞이는 용왕과 영등신을 맞이하는 대목으로 먼저 용왕문이라 하여 백지와 지전 따위를 걸어놓은 대나무 16개를 제장 가운데 두 줄로 들어 세운 다음, 길을 닦고 제물을 늘어 놓아 두 신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신을 환대하는 내용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으며 다만, 미역, 전복 소라 따위의 시를 뿌리는 씨들임과 이의 흥풍을 알아보는 씨점을 치고 나서 심방(무당)과 참석자들이 서우젯 소리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 이대 신도 합세하여 즐겨 논다고 생각한다. 배방선은 짚이나 널쪽으로 만든 작은 배에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 담아 큰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서 떠나보내며 큰심방(수무(首巫))이 “강남천자국으로 배 놓아 가자 합니다… 명년 춘 삼월에 재차 읍소서” 읍조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영등굿에는 앞에서 해야(海野) 청(淸)이 분류한 세 유형, 곧 신을 맞이하고 즐거움을 안기며 다시 떠나 보내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 복합형인 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동국여지승람에 적힌 요마희(曜馬戲)가 지금까지 알려져 온대로 “말뛰기 놀음”이나 “말뛰기 놀이”가 아니라 용배젯기의 한 가지임을 밝힌 이는 현용준 교수이다¹³⁾. 그는 “요마”는 이두식표기로서 이를 현대의 표준어로 바꾸면 “떼몰이 놀이”가 된다면서 옛 영등굿에 떼를 지어 빠르기를 겨루는 과정이 있었음을 증거로 들었다. 북제주군 구좌면 동북리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영등굿을 맡아온 박인주(朴仁珠 남무(男巫))님에 따르면 그가 어렸을 때 각 집에서 배방송을 위해 제물을 실은 작은 배를 떼배에 싣고 해안에 모여서 기다리다가 수심방(수무 首巫)의 영등신은 그 해 고기를 많이 잡게 되리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떼를 짓는 거리는 그때의 풍향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나 제물을 실은 배가 우도쪽으로 떠나갈 만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를 지켜보던 수심방이 정을 세 번 울리고 기를 쳐들어서 멈추게 하였으며 이 떼젯기에서 우승한 이는 “장원하였다” 추켜세웠고 그는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

현 교수의 주장대로 약마희는 떼젯기 겨루기임이 분명하다. 그의 주장도 그렇지만 이 민속이 중국 및 동남아대륙과 대만, 일본의 충승(沖繩)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가까운 구

13) 현용준, 曜馬戲-영등굿에서의 競漕民俗-, 延岩 玄平孝博士 回甲紀念論叢, 1980, 형실출판사,

주(九州)를 비롯하여 우리네 턱 밑이라고 할 대마도(對馬島)와 일기도(壹岐島)에까지 분포하였던 만큼 제주도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떼를 용으로 꾸미지 않고 “말머리 모양(마두자 馬頭者)”으로 꾸민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현 교수는

① 본래 충승(沖繩)이나 동남아처럼 용의 머리 형태로 떼를 꾸민 것을 잘못 보아 말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꾸몄다고 기록한 것이거나

② 우리의 설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용마(龍馬)관념이 작용되어 용마의 형태로 꾸몄던 것이 점점 서툴게 장식되어 말머리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③ 용선(龍船)이 신을 운송(運送)한다는 관념이, 말이 신을 운송한다는 관념으로 바뀌면서 용두형이 마두형으로 바뀐 것이거나, 그 어느 쪽을 생각할 수 있다.

고하면서 “본래는 떼를 용의 형태로 만들어 꾸미고 치송(治送)하던 것이 용마관념의 수용에 따라 용마형으로 장식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 용마형 장식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간소하고 서툴게 되어 마두형으로 보이게 되었으니, 이 단계의 것을 보고 기록자는 <득사형여마두자 식이채백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운운이라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수궁이 갈 범하다…… 후대에 이 장식이 완전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앞의 세가지 설명 가운데 첫째 내용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자들은 현지에서 보내온 보고를 바탕으로 적었을 것이고 더구나 이 책의 편찬은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용이 말로 바뀌는 잘못이 저질러졌다고 볼 수는 없다.

처음에는 용과 말로 꾸몄던 것이 뒤에 말의 형태로 굳어졌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적다. 이 행사에 등장하는 배 가운데 용 장식 외에 용사신(龍蛇神)이나(중국) 가공의 수생(水生) 동물인 나가(Naga)로 꾸미거나(타이) 배 좌우에 용 그림과 함께 구름, 봉황, 백조 따위의 새를 그리기는 하지만(대만) 용마형으로 꾸미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으며 더구나 처음에는 용이던 것이 뒤에 말로 바뀐 보기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 교수는 우리네 용마 관념을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관념은 우리 뿐 아니라 용배 짓기를 벌이는 다른 나라, 곧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도 퍼져 있는 것이다. 또 두 개의 동물이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대로 용과 뱀의 등장은 그렇듯 하지만 용과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현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설명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본디부터 말 모양으로 꾸몄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국여지승람의 “요마희(躍馬戲)” 표기는 옳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든대로 중국 남경(南京) 일대에서 말 머리로 장식한 배로 짓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금세기의 기록에까지 나타나고 더구나 타이에서는 오늘날에도 흰 말 두 마리가 수레를 끄는 모습을 실은 배가 등장하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 횡빈시(横浜市)의 배 짓기 경기에 짚이나 띠로 엮은 말을 떠나보내는 “お馬流し”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민속 가운데에는 말이 도깨비를 비롯한 잡귀를 물리쳐 준다고 하여 대문에 말대가리를 걸거나 주위에 말 피를 뿌리며 제주도 무가위 본풀이 가운데 영감놀이 편에도 도깨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에 흰 말 가죽을 걸고 흰 말의 피를 뿌리는 과정이 등장한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일본 횡빈시(横浜市)의 경우처럼 떼배에 말 머리를 장식함으로써 악귀를 쫓아 보낸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같은 민속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의 당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당(神堂)에서 제례를 올린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농악을 치며 신당 주위로 모여들고 대나무로 엮어 만든 말을 탄 장군은 이들 사이를 오가며 제관과 엄숙한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른다. 오후에 이르러 마부 들을 포함한 장군 일행이 사람들 사이를 빠져 나갈 때 주민들은 미리 마련해 두었던 가시나무나 회초리로 말을 두드리면서 쫓아내는 시늉을 한다. 대열 사이를 빠져나온 장군 일행은 마을 앞 개울가에 서서 “병고가 없고 풍년 들어 도초면민이 잘 살도록 도와 줍소서” 읊조리며 말을 버리고 마을을 향해 달려온다.¹⁴⁾

신당 앞에서 어랫동안 말이 노는 시늉을 하는 것은 마을의 온갖 잡귀를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고 말을 버리는 행위는 그 잡귀들을 멀리 쫓아보내는 것이며 사람들이 되돌아올 때 달음박질을 치는 것은 잡귀들로부터 도망치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일본(日本) 횡빈시(横浜市)의 말떠나보내기 “お馬流し”와 일치하여 흥미를 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제주도의 떼배 짓기도 바다로 나가서 제물 실은 배를 떠나 보낸 뒤 물으로 되돌아 올 때 벌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하겠다.

이밖에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수마(水馬)”라는 말이 보이고 “월인(越人)들은 배를 수레로, 노를 말로 삼았다 이주위마, 이즙위마야(以舟爲馬, 以楫爲馬也)”는 기록도 있으며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나오는 “마수희(馬水嬉)”도 관심을 끈다. 앞의 두 가지는 문맥으로 보아 “말처럼 빠르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지만, 배에 말 장식을 붙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더구나 서경부(西京賦)의 마수희(馬水嬉)는 “말처럼 꾸민 배로 물놀이를 벌였다”는 내용으로 새겨지기도 한다. 배짓기대회에서는 빠르기가 첫째인데, 이를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지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곳에 따라 말 그림을 그리거나 말을 나타내는 장식을 달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널리 퍼지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한편, 당(唐)나라 이전의 문헌에는 배의 꾸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단지 “경도(競渡)”라고 적은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는 배를 용이나 말로 꾸미지 않았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리고 당시에는 용(龍)은 천자(天子)를 나타내었고 용주(龍舟)는 곧 황제가 타는 배였던 까닭에 배를 용으로 꾸미거나 용(龍) 머리로 장식하지 않고 “곳에 따라” 말을 이용하다가 점차 용(龍)이 비를 상징하는 등 논농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용배 짓기로 굳어졌으며 말 장식 배는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네 용재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에도 더러 나타난다. 고려 경종(景宗)(975~981)은 2년 봄 동지(東池)에서 용선(龍船)을 타고 진사 시험을 보였고 선종(宣宗)(1083~1094)은 용선(僮船)을 이용, 서경(西京)의 대동강에서 밤 늦도록 잔치를 베풀었으며(4년 10월 정해(丁亥)), 숙종(肅宗 1095~1105) 또한 대동강의 용선(龍船)에서 대자와 귀족 그리고 서경(西京)의 문무양반과 더불어 즐기며 수가(水假)와 잡기(雜技)를 구경하였고(7년 7월 정사(丁巳)), 의종(毅宗)(1146~1170)은 용선(龍船)을 대동강에 띄우고 주연을 벌였다(23년 3월 기묘(己卯))는 기사가 고려사에 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의종(毅宗)은 “배를 금수(錦繡)로서 장식하고 가금(假錦)으로 돛을 만들었으며… 사치와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낭비하여 무릇 3년이나 걸려서 지었고(고려사 의종21년 4월 무인(戊寅)”, “배 안에 채봉(綵棚)을 맺고 여악(女樂)과 잡가(雜

14) 表仁柱, 民俗現象에 나타난말(馬)의 象徵性, 比較民俗學 9輯, 1992, 比較民俗學會

假)를 실어 강 중류에 띄운 배가 무려 19척에 이르는 (의종 21년 5월 계축(癸丑))”등 더할 수 없는 사치를 부렸다. 또 고려말의 우왕(禡王)(1374~1388)은 배를 짓되 “그 치대(侈大)함이 극에 이른지라 이름하여 봉천선(奉天船)이라 하고(11년 5월)” 이 배에 “기생을 태우고 동강(東江)에 행차하여 물놀이 즐기기를 매일처럼 하였으며(11년 5월 을해(乙亥))”, “음악을 방탕하게 연주하며 유숙(留宿)하고 연쌍비(燕雙飛)에게 말 두 필 그리고 기생 15명에게 말 한필씩 내리는” 호사까지 즐겼다(14년 2월).

조선조의 광해군(1608~1623)도 청나라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강화도로 달아날 세 척의 용선(龍船)을 지었는데 방을 크게 두는 등 호화롭기 그지 없었던 까닭에 신하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배에 방을 꾸민 것은 중국의 용선(龍船)을 본 뜬 것으로 생각된다. 몽계필담(夢溪筆談 보필담(補筆談) 권 2)에 “송(宋)나라 초기(965년 쯤) 현재의 절강성과 상소성에서 20장(丈) 이상이 되는 용선(龍船) 2척을 궁중에 바쳤는데 여러 층의 갑판에 호화스런 방과 살롱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¹⁵⁾. 앞에서 든 고려시대의 용선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역사적 기록만을 따르다면 우리 임금들의 용선(龍船)은 그들이 물에서 즐기기 위해서 지은 사치스런 배에 지나지 않으나, 용배 짓기 풍속이 중국 궁정에서도 성행되었고 일본에까지 건너간 점등으로 미루어 이와 관련이 깊다고 보여지며 중국에서처럼 초기의 용배 짓기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임금들의 풍류놀이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학자가 전라남도 완도읍 장좌리 장도(長佐里 將島)에서 해마다 정월 보름에 지내는 동제(洞祭)를 용배 짓기의 하나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청수(淸水) 순(純)은 그의 글¹⁶⁾에서 “오늘의 한국에 있어서도 경조(競漕)를 포함하는 연중 행사가 보인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의 동제이다. 부근의 해상(海上)에 있는 장도(將島)의 사당(祠堂)에서 받드는 송대장군(宋大將軍)이 제신(祭神)이다. 송대장군(宋大將軍)이란 신라의 장보고(張保皋)를 가리킨다”면서 그 근거로 최길성(崔吉成)교수의 저서(朝鮮의 祭りと巫俗, 1980)를 들었다. 그리고 이어 장보고에 대해 설명한 다음 “매년(每年) 정월(正月) 15일. 송대장군(宋大將軍)을 받드는 당(堂)에서 제례를 올리고 나서 장도(將島)에서 완도(莞島)까지 돌아오는 도중의 해상에서 두 척이 경조(競漕)를 벌인다.”면서 역시 앞의 최 교수 책을 소개 하였다,

이 책을 찾아 읽지는 못하였으나 장도에서 완도(장좌리) 사이에서 배짓기가 벌어진다 는 내용은 1968년 4월에 나온 중요민속자료 보고서 9집(이두현 교수 조사)인 장좌리 장도 제당(長佐里 將島 祭堂)(문화재관리국)에 이미 나와 있다(14쪽).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제(堂祭) 절차가 끝나면 일동(一同) 음복하고 섬을 물러날 때 다시 당 들레와 섬 들레를 굿패들이 농악을 치면서 세 바퀴 돈다. 섬을 물러날 때가 되면(보통 아침 9시 경) 밀물이 저서 출렁거린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배를 짓고 마중 나오면 마을로 상륙(上陸)하여 먼저 굿패들이 바닷가의 마을 공동 우물에서 우물굿을 치고...”

이 글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장도쪽을 향해 “다투어 배를 짓고 마중 나가는”것으로 그려졌으나 이보다 한 해 뒤에 나온 또 다른 보고서(부락제당(部落祭當), 조사자 이두현

15) J.Needham,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中國の科學と文明 第11卷 航海技術, 板本賢 外譯, 1981, 恩索社, 345쪽에서 재인용.

16) 2) 글의 215쪽

(李杜鉉), 장수근(張壽根), 현용준(玄容駿), 최길성(崔吉城), 1969년 12월, 문화재관리국)에는 굿패들이 장도(將島)를 떠나 장좌리로 돌아올 때 배젓기를 벌이는 것으로 적혀 있다. 다음이 그 내용이다.

“이윽고 마을 쪽에서 4~5 척의 배가 섬을 향하여 저어 온다. 이것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공을 쌓는 것이 되기에 자진해서 나온다고 한다 음복(飲福)으로 어지간히 취기가 오른 굿패들이 배에 오르면 마을까지 배마다 농악을 치며 덩실 덩실 춤을 추어 아침 햇살이 눈부신 포구(浦口)에서 경연(競演)의 장관을 이룬다. 이는 상원(上元)의 수석전(水石戰)(고구려 高句麗)·편전(便戰)(석전 石戰)·색전(塞栓)·차전(車戰)·갈전(葛戰) 등과 같이 주술적(呪術的) 쟁투(爭鬪)나 경기(競技)의 의의(意義)를 지녔던 행사와 같은 연습(演習)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길성 교수는 이 두가지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과 한 해 사이에 배젓기의 방향이 바뀐 것도 납득키 어렵지만, 그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이곳에서 배젓기 겨루기가 벌어졌던가 하는 점이다. 나는 이두현 교수의 현지조사 때(1967년 1월) 동행한 일이 있지만 용배젓기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1994년 봄에 다시 현장을 찾았으며 아버지 때부터 장도의 당제를 주관해 왔다는 장좌리 거주 김봉도(71살)님도 만나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배젓기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먼저, 장도나 장좌리 사이의 거리는 100여m에 지나지 않아 배젓기 겨루기를 벌이기에 매우 좁은 곳이며(사진8) 바닥도 낮은 편이어서 밀물때라도 깊이가 1.5m쯤에 지나지 않고 썰물 때에는 사람이 신을 신은채 걸어 들어가며 당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마을로 되돌아 올 때에나 배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김봉도님에게 배젓기에 대해서 묻자 그는 한마디로 부인하였다. 참가자가 많을 때에는 오히려 세 네 척의 배를 서로 묶고 돌아 왔으며 두척일 때에는 다만 농악가락에 맞추기 위해 될수록 가까이 붙여서 저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바람이 거셀 때에는 두 척일지라도 서로 묶었고 올 해(1994년)에도 이같이 하였다고 들려주었다.

따라서 앞의 두 보고서 저자들은 서너 척의 배에서 풍물을 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배젓기 겨루기를 벌이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최교수도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곳에서 용배젓기가 벌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현지조사에 참가했을 현용준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용배젓기 민속은 비록 이름이나 내용은 조금 바뀌었지만 오늘날에도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라북도 위도면(鰐島面) 대리(大理)마을의 띠벳놀이(중요무형문화재 82호)이다. @119

대리(大理)에서는 해마다 정월 초사흘날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무사태평을 바라는 당제를 지내는데 이 제례는 성주굿, 산신굿, 손님굿, 지신굿, 본당 서낭굿, 애기씨 서낭굿, 장군 서낭굿, 깃굿, 문지기굿의 순서로 진행된다. 굿패들은 원당(願堂)에서의 당굿이 끝나면 바닷가로 나와서 용당굿을 벌이며 이 절차를 마친 다음 작은 띠배에 여러 가지 제물을 실어 바다로 떠나보내며 띠벳놀이라는 이름은 이에서 비롯되었다.

띠배는 띠와 짚, 싸리나무 따위를 길이 3m, 넓이 2m쯤 되게 엮은 배로서 이에 떡, 밥, 고기, 나물, 과일, 따위를 싣고 가운데에 허수아비를 세우며 뚝에는 “대풍어 용왕님”이라고 적어둔다. 용왕굿이 끝나면 이 띠배는 큰 배에 끌려서 바다로 나가고 여러척의 배들도 오색의 깃발을 휘날리며 뒤를 따른다. 이때 큰 배에 탄 사람들은 가래질 소리, 술배 따위의 노래를 부르고 농악도 합세한다. 바다 한 가운데에 이르러 띠배를 풀어놓았

을 때 사람들은 이 배가 마을의 모든 액운을 싣고 멀리 멀리 떠나가기를 바라면서 합장을 하거나 절을 올린다. 만약 띠배가 멀리 가지 않고 마을 앞 바다로 되돌아 오면 돌립병이 들고 어부가 많이 죽는 따위의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 놀이는 해야(海野)의 분류를 빌리면 액운의 산을 멀리 떠나보내는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현재 배를 다투어 짓는 과정은 들어 있지 않으나 예전에는 여러 배들이 악운이 실린 배로부터 재빨리 피하기 위해 다투어 저어가며 돌아왔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경기도 용진군 장봉도(長峰島) 일대의 띠배놀이도 앞에서 든 위도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풍악을 잡히고 띠로 엮은 배를 끌고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옷이나 헌 신발 따위의 액물(厄物)을 받아 싣는다. 어민의 풍어와 마을의 무사태평을 비는 용당굿을 마치고 나면 큰 배가 띠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서 띠배에 불을 지르고 이로써 사람들의 모든 액운이 없어진 것으로 여긴다. 띠배를 바다 멀리 떠나 보내지 않고 바다에서 불 태우는 것이 다를 뿐 나머지 과정은 위도의 띠배놀이와 거의 같다. 이밖에 황해도 용진의 배연신굿 가운데 강변굿 과정에서도 띠배에 여러 가지 제물과 허수아비를 실어 먼 바다로 띄워 보냄으로써 모든 액을 물리친 것으로 믿으며¹⁷⁾ 거제도의 별신굿에도 같은 과정이 들어 있다¹⁸⁾.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민속은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널리 퍼져 있는 셈이다.

동해안의 절에서 벌이는 해운제(海運祭) 때의 용선(龍船) 또는 용왕선(龍王船)도 관심거리이다. 종이를 접어 만든 이 배는 억울하게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데에 쓴다. 굿이 끝나면 절마당에서 태우지만 경상북도 경주군 강동면 국당리(菊堂里)의 옥연사(玉蓮寺)에서는 해가 뜰 무렵 형산강으로 나가서 물에 띄워 보낸다.¹⁹⁾ 이러한 제의도 액운을 멀리 보내는 유형의 한가지로서 앞에서 설명한 일본 섬 일대의 그것과 일치하여 주목된다.

6. 맺 음 말

이제까지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동남아시아 대륙 여러 나라에서 벌여온 용배 짓기의 실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 민속이 있었으며 근래까지 제주도에서 베풀어진 이른바 약마회는 말머리로 장식한 띠배를 짓는 의례였고 이와 함께 전라북도 위도의 띠배놀이를 비롯하여 서해 및 남해 그리고 동해 일부지역에서 베풀어지는 용왕제도 이와 관련이 깊은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오직 캄보디아 한 곳의 보고가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마을의 악운을 띠배에 실어 떠나 보내는 관습도 우리나라 일본만의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륙에 퍼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같은 민속이 중국 서남부인 운남성이나 귀주성일대의 소수민족들 사이에 오늘날에도 지켜지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용준 교수가 제주도의 띠배짓기를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자들이 약마회로 적은 사실에 대해 용의 머리를 말로 잘못 보았거나 용마로 장식했던 것이 말로 바뀌었을 가

17) 황루시, 용진 배연신굿, 한국의 굿 10, 1986, 열화당, 84쪽.

18) 황루시, 거제도 별신굿, 한국의 굿, 1993, 89쪽

19) 河孝吉, 새(鳥) = 龍王船孝, 한국민속학 11집, 1979, 민속학회, 173쪽.

능성이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배 이물에 말 머리를 걸어놓은 예가 중국이나 일본에 있고 현재 타이 북부지방의 용배 짓기에도 말이 등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띠배에는 본디부터 말머리를 썼으며 따라서 동국여지승람의 기사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고려시대에 성행되었고 조선시대에도 베풀어진 임금들의 용선놀이도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대륙의 여러 나라처럼 본디는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에 국왕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했던 데에서 왔을 가능성을 들었다.

일부 학계에서 전라남도 완도읍 장좌리 사람들이 장도에서 동제를 마치고 배를 이용해서 돌아오는 과정을 용배 짓기로 잘못 보았고 이에 따라 일본 학계에까지 이 민속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옳지 않음도 지적하였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가락국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벌였던 용배 짓기 민속이 자취를 감춘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제주도 약마회 하나만 등장한 것을 보면 이 지방의 용배 짓기는 조선시대 초기에 이미 사라진 사실을 알게된다. 그리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민속은 우리 나라 내륙에 널리 퍼지지는 않았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일대의 남부지역과 제주도에서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전라북도 위도를 비롯한 서해안 일대에 흔적을 남기는 한편, 내륙에서는 일찍부터 용왕제 따위로 탈바꿈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대륙의 타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 성행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일찍부터 자취를 감춘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인하대학교의 1994년도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사진1. 배 이물에 걸어놓은 용머리



사진 2 배를 젓는 모습

사진2. 배를 젓는 모습



사진 3 언덕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사진3. 언덕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사진 4 홍콩의 용배 젓기 대회에 나가기 위해 대기중인 배와 선수들

사진4. 홍콩의 용배 젓기 대회에 나가기 위해 대기중인 배와 선수들



사진5. 타이 북부 난(Nan)강에서의 배 짓기 겨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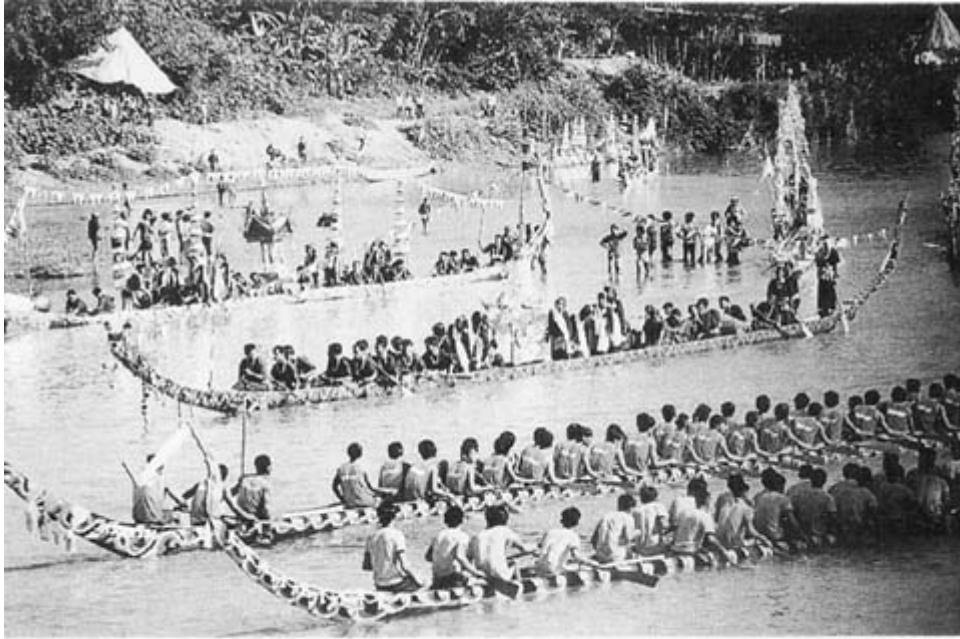


사진 6 타이 난강의 배 짓기 겨루기에 나선 배들

사진6. 타이 난강의 배 짓기 겨루기에 나선 배들



사진 7 이물에 두 마리의 말을 세운 배

사진7. 이물에 두 마리의 말을 세운 배



사진 8 장좌리에서 바라 본 장도 모습.
두 지역 사이의 바다는 매우 좁아서 배 짓기 거루기를 벌이기 어렵다.

사진8. 장좌리에서 바라본 장도 모습